

#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드리는 11월 선교편지

NOV 2, 2015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 14:13-14)

##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9월, 10월을 보냈으며,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기에, 기도 가운데서도 평강을 찾지 못하였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저희를 억압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저희를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역자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싸워 주시리라 믿으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1. UKCW 기독교종합대학 졸업식을 10월 31일 하였으며, UKCW 대학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대학을 공격하는 다른 그룹의 온갖 유언비어와 위협과 방해들을 극복하고, 10월 31일 UKCW 대학 22명의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에 졸업식 시작부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랑 시장께서도 축사를 보내주시고, 여러 면에서 정말 은혜로운 졸업식이었으며, 특별히 졸업생들이 각자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꽃들을 전해드리는 순서에 마음들이 찡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17년 전 1998년에 저희에게 UKCW 대학을 이양한 현지교단이 갑자기 17년 적의 재단 이양 서류와 법률사무소 서류 모두가 가짜라고 하면서, UKCW 대학의 소유권이 아직 현지 교단 자기들에게 있기에, 새로운 UKCW 재단을 만들어 새로운 총장단을 임명하였으며, 저희 재단과 학교에 우리의 현재 모든 활동은 불법이며, 법정 소송과 형사 고발도 하겠다는 위협과 방해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서류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단의 영향력이 말랑 이곳에서 매우 강하여, 말랑 현지 교회들까지 가세하여 UKCW 대학 재단과 운영권을 뺏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이민국에 까지 고발하여 말랑 이민국에 가서 3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말랑 이민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유언비어와 방해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리들의 정당성만을 가지고 싸우기에는 정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비교가 되지 않는 현실적 상황이며, 교수들과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교 운영도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UKCW 대학은 언젠가는 UKCW 대학을 아무런 조건 없이 현지 분들에게 이양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에, 이번에 이런 현실적 상황에 부딪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대학을 현지 교단에 넘겨주고 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대학을 넘겨드리는 것은 현실적 두려움으로 도망가기 위함이지 순수한 마음이 아니며, 오히려 대학을 지켜내고 대학이 안정화가 된 후에 대학을 이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주님의 뜻이 아닌 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졸업식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법정과 문교성과 경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UKCW 대학을 지키고자 합니다. 저희의 소유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학의 정당성을 되찾으며, 대학의 진정한 이양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가고자 합니다. 17년 전에 UKCW 대학을 저희 재단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저희 재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여러 동역자분들의 절실한 기도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말랑에 진정한 기독교종합대학이 반드시 반드시 세워지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 **2. 자카르타 한센인마을 의족후원과 한센인 자녀교육 후원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11월 7일 자카르타에 들어가서 한센인 마을 의족 후원과 자녀교육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의 마음은 대학 문제로 무겁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다른 사역들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며, 한센인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에는 특별히 영국에 계신 집사님 부부를 통하여 5개의 의족을 후원받아, 5명의 의족 후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20여명의 한센인 자녀 교육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한센인분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솜바지역 까항아와이 마을 Ningsi 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숨바섬 닝시를 10월에 발리로 데리고 나와 sangla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이미 간에서 시작된 암이 모든 복부 장기와 양쪽 폐에 전이가 되어 도저히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 결국 숨바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비행기도 타 보았고, 이렇게 좋은 호텔, 침대도 처음이고, TV 랑 에어컨도 처음 보았다고 너무 좋아했던 이제 겨우 14살 소녀이기에 더욱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닝시를 수술하고 치료해서 숨바섬 산속마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저희는 생각하였지만, 주님께서서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리라 믿으면서도,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닝시를 생각하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닝시와 닝시 어머니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고, 잠시나마 기쁨과 희망을 주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이제 우리의 몸과 생각과 생명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닝시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닝시 가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 **4. 호주 주안교회 청년들과 숨바사역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2015년 7번째로 숨바섬 사역을 호주 주안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으로 오는 사역팀이며 숨바섬 17개 마을들을 다니면서 예배사역, 어린이사역을 하고자 하며, 특별히 중부 숨바 지역 한군데를 처음으로 들어가며, 현재 까리따 마을에 건축 중인 2개 교회도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숨바섬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분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계신가를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으며 이곳 영혼들을 섬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 감사 드리며 계속 금번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5년 11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함차ㅎ/스ㅎ 드림